

# 자율화될 대학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고찰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1. 대학의 학생선발

대학의 사명은 연구와 교수에 있다. 대학에 따라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도 있으나, 연구를 통한 교수와 학습은 학문의 정체성을 방지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습을 행하는 주체는 교수와 학생인데, 대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의 한 부분은 학생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설립된 후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학 초기에는 대학교육의 수요가 많지 않아 대학생 선발은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을 원하게 되어 대학교육의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 선발방법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벌 위주의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의 요구는 감소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성균관 입학, 해방후에도 대학의 진학은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기대로서 대학입학 경쟁률은 날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이 사회진출과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전근대적 사회일수록 인위적으로 성취 가능한 학연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일류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류대학의 신입생 선발제도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선발제도의 과학성에 근거한 공정

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대학생 선발제도를 통제하는 정책기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를 살펴보면 해방후부터 현재까지 크게 11번에 걸쳐 제도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나, 입시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수정과 보완 때로는 검사형태의 변화였지,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전폭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대학입시제도는 정부, 대학, 고등학교 교육기관이 각 기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세 기관간의 역학 구도에 의하여 변화되었지, 진정으로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제도의 변화는 아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학생 선발제도를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다 입시문제 출제 오류와 누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권이 주장되어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이 일부 이양되었다가,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나타나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면 다시 국가가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제도의 악순환을 거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전인교육과 고등정신능력을 함양하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94학년도부터 적용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역시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성적, 대학별고사 모두 지난 50년간 사용되어 온 요소들의 변형된 형태일 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있는 대학입시제도라 보지 않는다.

대학생 선발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노력은 대학입시제도가 최소한 두 가지의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중학교 교육, 국민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하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제도의 하나인 검사의 내용과 문항 출제형태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도 달라진다.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대학생 선발제도는 상호경쟁을 중요시하는 경직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며,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우세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서 다양성보다는 획일성과 기계성이 우월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개인의 독창성과 개인차가 중요시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교육은 다시 경직된 사회를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발제도는 획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 대학들은 일류대학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 부분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 점수를 가지고 도표에 의하여 대학입학 가능 학과를 선택하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 선택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학의 특성이 무시되고 나아가 학생들의 개성, 적성, 취미, 특기 등을 고려한 대학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고교내신성적의 각 부분에서 얻은 점수의 총점을 가지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과 학과를 쉽게 선택함으로써 적성에 맞지 않는 학업에 싫증을 느끼는 대학생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학생의 취미, 적성, 가치관, 장래 직업관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현재의 대학 진학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지니고 있는 대학생 선발제도

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학의 자율에 의한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쟁률이 높은 45개 대학들이 대학입학 사정준거로 사용하는 요소는 모두 22개 이상이며 가장 많은 요소를 고려한 대학은 하버포드(Haverford) 대학으로 19개이다.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요소들을 대학입학 사정준거로 사용하고, 대학입학 사정방법이 동일한 대학은 없다(성태제, 1995). 영국 대학 입시제도의 특징으로는 학교, 계열, 학과에 따라 준비하는 시험과목이 다르고, 불합격한 학생은 부족했던 교과목만 재수하여 후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 사정준거로 GCSE 시험, GCE 시험, 내신 점수, 학교장 추천서, 담임교사 의견서, 자기소개서, 면접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반영한다(국립교육평가원, 1995). 독일의 경우 아비투어라는 독특한 형태의 논술형고사를, 프랑스의 경우 바칼로레아라는 고교 졸업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하고, 그의 추천서, 면접, 생활기록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대학 신입생 선발방법을 대학 자유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대학의 목적, 특성, 전공 분야에 맞게 척도를 다원화·복수화하고, 수험생의 특기와 적성 등을 고려하는 입학제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접, 소논문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으며, 특별입학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이상의 선진국가들의 대학생 선발방법은 대학에 따라, 전공계열에 따라 상이한 전형방법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학문적 성격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 사정요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다양한 대학생 선발제도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에 의하며,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의 학문적 성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열별 혹은 전공학과의 특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자율이라 하면 방종, 무책임과 연결지어 부정적 단어를 연상하는 경우

가 흔하나, 자율만큼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없을 것이기에 선진국의 대학 입시제도는 각 대학의 책임 아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며,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학의 특성은 물론 학과의 학문적 성격이나 특성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에서 얻은 총점에 의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이 지배하여 왔기에 인간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 2. 대학 선발을 위한 교육개혁안

획일화된 대학입시로 인한 과열과외가 학교와 사회에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고양을 위한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대학입학제도의 골격은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즉, 대학입학전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국·공립대학은 국가에서 다소 통제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대학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개혁안의 특징이다. 국·공립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은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보다는 종합생활기록부를 사용하고 수능, 논술, 면접, 실기 등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중에 있으나, 종합생활기록부의 내용 중에서도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학생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대학에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전폭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양병체제로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대학입학 정책의 기본 구도를 잡은 것은 모든 대학에 대학입학제도 자율권을

동시에 부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충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립대학의 대학입학제도에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입학 사정준거로 제시한 요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이다. 그렇다면 종전에 실시하여 오던 대학입시제도와 다른 것은 종합생활기록부밖에 없다. 1994, 1995학년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면접, 실기를 모두 실시하였다. 다만 교육개혁안이 강조하는 것은 고교내신 성적을 15등급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제도를 종합생활기록부에 서술적으로 표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되던 면접도 대학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헐적으로 언급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교육개혁안의 특징을 종합하면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학입학제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해방 이후 50년간 대학입시제도를 전폭적으로 대학에 위임하여 신입생 선발제도를 대학별로 수립하게 하자는 정책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획기적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반면, 그르칠 수도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교육개혁안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대학입학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창적 대학입학제도 수립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획일적 대학입학제도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그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제도를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학대학의 경우, 신학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보다는 정의적 행동특성에 주안점을 두는 대학입시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일한 대학내의 학과들일지라도 계열의 특성이나 학과의 성격상 보다 독특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다. 자율적 대학입학제도 수립은 각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전공 내용을 강조하여 그 전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적성이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므로 대학의 특성뿐 아니라 전공 특성화를 이룰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전공의 특성화는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여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 본다. 전공의 특성화는 교육내용을 전문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한다.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 대학입학제도는 획일적인 대학입학제도에 의하여 생긴 대학 서열화를 배제하므로 지방 대학의 특성화뿐 아니라 대학의 평균적 발전을 촉진한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문제들인 특정지역의 인구집중, 학연에 의한 사회적 연대의 부작용, 학생들의 지적 계급의식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학생의 개성 존중 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 자율성에 의한 입학제도는 대학의 설립목적, 특성, 교육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므로 학생들이 그들의 적성, 흥미, 태도, 가치관, 장래희망에 의하여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더러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추구한 후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종전의 국·영·수 중심의 지필검사에 의존한 획일적 대학입시제도가 하루종일 학과교육에 치중하게 하였다면 다양한 대학입학제도는 학생들의 취미, 적성, 가치관, 장래희망 등에 의한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교가 대학입학 준비 교육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등학교가 대학입학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 임무를 상실한 것으로 반성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으나, 획일적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는 일류대학 진학이 고등학교 교육의 묵시적 교육목표가 되어 왔기에 현실적으로 대학입학 준비교육을 경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학입학제도가 다양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특정대학의 입학에 위한 입시준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섯째, 홍익인간을 양성한다. 우리나라 교육법 1조에 명시된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인간양성에 있다. 종전의 획일적 입시제도는 상대비교평가를 지향하므로 친구가 경쟁대상이 되어 협동과 우애보다는 경쟁에 따른 이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대학입학제도는 경쟁대상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고, 각각 다른 목적을 추구하므로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일곱째, 소수과목 집중 고액과외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획일적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 국·영·수 중심의 지필검사는 세 과목에 대한 과외수업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액과외를 유발하였다. 고액과외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사회 경제정의마저 무너뜨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일정 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와 부유층 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가 공직에 근무하는 자들은 자식의 과외비 마련을 위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대학입학제도는 국·영·수 중심의 지필검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과외에 따른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다양한 대학입시제도가 과외수업을 근절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과외수업이 소수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다변화됨으로써 수요-공급에서 벗어지는 문제점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대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자율성은 다양성뿐 아니라 경쟁성을 유도한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를 수립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장학금 제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 시설의 확충, 졸업후 진로에 신경을 쓰는 등 대학의 내실을 충실히 하려 할 것이다. 종전의 획일적 대학입학제도 아래에서 상위 서열로 판명되어 안일하게 신입생을 받아들였던 소위 일류대학들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학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예견한다.

교육개혁안에 따른 자율적 대학생 선발제도가 이상에서 언급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를 예전에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은 대학생 선발제도에 따른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 때문이다. 대학생 선발제도의 타당성이란 선발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느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성악과에서 실기시험에 비중을 두어 신입생을 선발하려 할 때 가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면 이는 신입생 선발방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가창력보다 미모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면 신입생 선발방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율성에 입각한 대학입시제도는 다양하여 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대학입학 전형준거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인성, 추천서, 자기 소개서, 적성, 특별활동, 사회봉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준거를 사용한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대학별로 요구된다.

대학생 선발제도의 신뢰성이란 선발제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후 정해진 사정준거에 의하여 오차없이 제대로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위의 성악과의 예에서 어떤 지원자의 가창력을

점수화할 때 그 수행에 적합한 점수를 부여하였느냐이다. 이는 교육측정·평가적 관점에서 채점자간 혹은 채점자내 신뢰도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채점자들끼리 하나의 수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채점자간 신뢰도가 높다고 하고 또한 한 채점자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되게 점수를 부여하였다면 채점자내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예·체능계열 입시 부정이란 채점자간 그리고 채점자내 신뢰도와 관계된 것이다.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대학입학 전형준거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시험, 면접(구두시험), 종합생활기록부 그리고 지역할당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검사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단위의 표준화 검사로서 학업적성검사와 학업성취도 검사가 혼합된 성격을 띠나,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탐구영역의 경우, 통합적 내용에 의한 문항이라기보다 각 교과별로 할당된 문항들의 합성으로서 검사의 성격이 모호하다. 완벽한 검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단일한 검사결과만을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부뿐 아니라 어떤 공익단체에서 교과내용별로 치를 수 있는 표준화 검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SAT II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검사뿐 아니라 검정고시 등의 검사가 존재하여야 대학별로 특색있는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술시험에 대한 출제·채점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채택된 배경은 국가단위의 표준화 검사가 객관식 위주의 문항으로 출제됨으로써 사고력의 감소와 암기 위주의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연루한다. 사고력과 창의성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논술고사가 채택되었으나, 논술고사의 성격이 모호한 상태이다. 논술고사가 무엇을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이전에 철학과와 국문학과와의 영역 다툼이 된 듯한 인상이 짙다. 논술고사는 철학자를 만들기 위한 것도 또한 문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검사도 아니다. 사고력으로서 이해력, 요약능력, 분석력, 종합력, 추리력, 비판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채점의 기준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할 때, 채점의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채점방법에 대한 교육측정·평가적 측면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 채점이 객관성을 상실할 때 논술고사는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수십 년의 시행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오늘의 검사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면접이나 구두시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면접이나 구두시험이 대학입학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형식적 입학 전형자료였으나, 다양한 대학입시제도에서 때로는 대학입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학이나 전공 특성에 따라 면접과 구두시험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채점방법 역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면접결과를 점수화하는 과정 역시 논술시험을 점수화하는 과정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생활기록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생활기록부는 원래 학교에서 생활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이지 대학입학을 위한 서류가 아니다. 교육개혁안에서 고교내신성적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사용한다는 발표 때문에 종합생활기록부

는 최대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종합생활기록부에 수록될 내용과 좋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한 학부모의 열성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이 언론에 언급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개혁위원회는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양식, 내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종합생활기록부가 통일된 형식을 가질 때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용이하게 사용될지 모르나, 이는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므로 교육개혁안의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 즉,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 사정을 위한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함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되어 있음을 뜻한다. 왜 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대학입학 사정기준에 학생들의 고교 생활태도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대학교 입학원서에 학생이 기록하게 하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그 기록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다 선진적인 입학전형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대학은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며, 기타 정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허위기재하여 입학할 경우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입학취소 이외의 법적 처벌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할당제에 대한 재고이다. 특정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 거주 학생에게 대학입학의 특혜를 주는 제도는 자유경쟁 원리에도 어긋날 뿐더러 영원히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농촌이 그리고 어촌이 황폐화하는 근본 원인을 밝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지 대학입학에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대학의 특성학과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혜택을

줄 수는 있으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대학입학 전형준거를 살펴볼 때, 아직도 대학에 입학 전형 자율권을 부여하기에는 불안감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가 그렇고 지역할당제 또한 그렇다. 어차피 대학입학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과감히 각 대학에 신입생 선발제도를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 3. 자율적 대학생 선발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제언

자율적 대학생 선발제도가 갖는 많은 장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비전을 갖는 대학입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는 대학입시에 관련된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기관 그리고 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인식전환의 주체는 크게 구분하여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대학,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 그리고 고등학교 나아가 사회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학 당국의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대학 입시제도 아래 안일하게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학과 전공에 부합하는 대학입시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타대학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엽적으로 미세한 부분의 변화로 대학들의 갈등을 빚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던 과거의 경력에서 벗어나 해당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입학 정책을 수립할 때 특성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타대학의 대학입학 정책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한다

면, 이는 그 대학의 분교 내지는 하류대학으로 간주되어 항시 그 대학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각 대학은 타대학과 비교·경쟁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독특한 대학입학 정책을 자신있게 수립할 시기가 왔으며, 대학은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될 것이다. 정원이 확보되고 건물이 있으면 대학이 운영되고 과거의 명성에 의하여 유지되는 박물관식 형태의 대학보다는 특성화된 대학들이 보다 훌륭한 대학으로 미래에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권이 부여된 대학생 선발제도 아래에서 대학이 타성에서 벗어나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 입학사정, 일시, 방법 등에 관해 많은 실증적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적 신입생 선발제도에 따른 부정입학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과거 입시사에서 발생하였던 일ಿಗೆ 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부정입학을 통하여 학교 재정을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재단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경쟁력에 의하여 대학 존립이 결정되는 사회의 경우, 부정입학 등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대학은 앞으로 대학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지탄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문들의 염려에 의하여도 지난 날의 대학입학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은 삼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 뒤에는 항상 책임이 수반되므로 책임을 묻는 교육부의 입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율권을 부여하였을 때, 부정입학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대학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는 물론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부정입학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학 당국자들이 정의로운 대학의 운영만이 명문 대학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둘째, 대학의 인식 변환 못지 않게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획일화된 대학입시제도에서 각 대학들은 철저하게 서열화되었으며, 적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는 적성과 장래 희망보다는 오직 일류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학원서 제출 마감시간 전에 학과를 변경하는 일을 하여 왔다. 그러나 자율적인 대학입학제도 아래에서 수립된 각 대학의 다양한 신입생 선발제도에 의하면 대학을 서열화하기란 종전보다 쉽지 않으며, 다른 학과와의 비교도 쉽지 않다. 즉, 대학들이 서열화되기보다는 특성화되는 과정에서 진학 상담지도는 해당 학생의 적성, 특기, 취미 그리고 장래 희망에 따라 대학과 학과 선택을 권유할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각 대학이 각기 다른 대학생 선발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할지 모르나, 이는 기계적인 진학지도에 익숙해 있던 편안함 때문이지 결코 다양한 대학입시제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일류, 이류 대학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 개인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개인 형편에 부합하는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해방후 우리나라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하급 교육기관은 상급 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되어 학원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현재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고등학교 설립 목적과 교육목적은 물론 인성교육도 무시되었음이 사실이다.

다양화된 대학입시제도에서 다양한 대학들이 병존할 때, 고등학교는 특정대학을 목표로 한 입시준비교육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보다도 고등학교는 이제야말로 대학입시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서서히 전개하여야 한다. 일류대학 진



학률이 명문고등학교로 평가되는 시대보다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평가될 시대가 올 것이므로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진실로 고민하여 이에 충실한다면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진학지도 역시 학생들의 개성, 적성, 특기, 장래 희망, 직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입시제도에서 진학지도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진학상담 전담교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지시·통제하는 기관보다는 지도, 자문, 협력하는 기관으로서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제도에 대한 자문·조언보다는 지시, 통제, 감독 기능이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입학 정원이 그렇고 입학사정 방법, 일시 등 모든 부분에서 간섭을 하여 왔으며, 다소 색다른 입학정책을 발표하여 실시하려는 대학에 보이지 않는 행정적 제재를 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각 대학들이 시행과 착오에 의하여 각 대학 특유의 대학입학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던 시기를 박탈당하였기에 현재 대학입학제도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80년 7월 30일 과외금지 조치와 함께 획일화된 대학입시정책이 없었다면 각 대학은 대학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각 대학마다 특성있는 신입생 선발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본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징계, 통제, 제재보다는 지도, 자문, 협력하는 자세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입시제도가 빨리 정착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 변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시하지만 학벌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느냐를 묻고, 기업은 특정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한다. 현대화되는 기업에서 차차 대학의 이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여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추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야말로 국가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차제에 능력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하므로 명문대와 인기학과의 졸업 여부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만약 사회나 기업이 특정대학과 특정학과 출신만을 선호한다면, 이는 과연 대학입학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사회진출의 준비기관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업무 특성과 관련된 능력있는 전공자를 채용하는 신입사원 채용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대학입시제도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기관이 일체가 되지 않고는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따른 개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 실현은 늦어질 것이다. ■

#### 〈참고문헌〉

- 성태제,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 준거 탐색과 제언", 교육평가연구회 발표논문, 1995.  
국립교육평가원, 『교육의 국제 비교』, 서울:국립교육평가원, 1995, pp. 573~608.

성태제/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문위원, 대입제도 연구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문항반응이론 입문』, 『타당도와 신뢰도』 등이 있고, "A comparative study of recently proposed item bias detection method", "목표지향검사를 위한 준거 설정방법",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과외", "대학별고사를 위한 문항분석, 표준점수, 검사동등화"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